

산업부는 우리 산업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

<보도내용>

- 2026.1.11.(일). 해럴드경제 「산업부, ‘가짜일’ 줄이려다 ‘진짜일’ 패싱?...
쿠광·베네수엘라 사태 존재감 無」 보도 관련
 - 쿠광 사태에 대해 유통산업 총괄부처에서 별다른 대응 없어...산업부 소관
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발목 잡는 사이 쿠광 등 이커머스 급성장
 - 석유산업과가 석유수급·비축 등 국내석유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나,
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 등에도 공개 점검회의는 없는 상황

<정부 입장>

- 산업부가 진짜일을 패싱하고, 유통산업과 베네수엘라 사태 등 정책 이슈에
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
 - 산업부는 이커머스 급성장 등 온·오프라인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
종합적인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, 제도 개선과 관련
지원을 통해 온·오프라인의 균형있는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
- 산업부는 국제 석유시장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며, 유가 변동성이
커질 경우 석유시장점검회의도 신속히 개최할 예정임
 - 산업부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 점검
회의*(1.5일 개최)에 참석하여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, 우리
경제 영향을 점검**하였음

* 참석 : 재경부, 외교부, 산업부, 금융위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국제금융센터

** 우리나라는 '04년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이 없어 국내 원유 수급 영향은
제한적이며,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 진행 예정

- 향후에도 베네수엘라,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 등 국제 석유시장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,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석유시장점검회의를 신속히 개최하여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

□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무보고에서 강조하였듯이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이고 국민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“진짜일”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

담당 부서	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	책임자	과 장 김태희 (044-203-4380)
		담당자	서기관 김수정 (044-203-4384)
	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한서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성 (044-203-5223)

